

정보검색사의 방향

김수천
도원컨설팅 대표이사

요사이 정보검색사는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유망 직업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잡지 및 신문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올해초 미국 노동부는 21세기 유망 직업 베스트를 발표했는데 그중 정보검색사가 10위에서 3위를 차지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정보검색사라는 자격증 시험이 내년부터 치러지게 되자 부쩍 정보검색사에 대한 문의전화를 많이 받는다.

“정보검색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정보검색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보검색사를 위한 교육 기관이 있습니까?”

“정말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정보검색사가 되기 위한 자질이 무엇인지, 어떠한 내용으로 공부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 없이 막연하게 미래의 유망 직업이라는 말만 듣고 있음을 느낀다. 미래의 유망 직종인 것만을 강조한 매스컴의 영향도 있겠지만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도 큰 것 같아 죄책감이 먼저 앞선다.

아직 국내에는 이와 같이 세간에서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정보검색사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나 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내 정보검색사의 현황, 정보검색사가 되기 위한 자세 및 미래의 첨단 직업인 정보검색사가 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정보검색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이 분야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부족하나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그러면 정보검색사는 무엇을 하는 직업인가? 말 그대로 해석하면 원하는 정보를 인터넷, 온라

인 상용 데이터베이스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찾아내는 직업이다. 종래에는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정보의 소재가 한정되어 있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고 또한 그에 상응하는 수많은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은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야말로 KNOW-WHERE의 가치가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원하는 정보의 소재를 파악하여 정보를 찾아내는 정보검색사가 하나의 직업으로 위치지울 수 있게 되었다.

미국에는 약 2만 정도(1989년 기준)의 정보검색사가 있고, 이미 1985년부터 정보검색사라는 자격증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일본에는, 이 시험에 합격한 인원을 기준으로 할 때, 2급 정보검색사가 3,000명, 1급 정보검색사가 200명 정도 존재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직업으로서 인정을 받게 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학이나 대학원의 문헌정보학과 등에서 정보검색을 하나의 전문 과목으로 두고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에서는 실질적인 검색 실습을 하면서 학생들이 정보검색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자들도 서비스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상세한 구성 내용 및 관련 분야 검색을 위한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인 과정을 통하여 정보검색사가 양성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상황에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상황은 모든 면에서 열악하다. 정보검색사의 양성 전문기관이나 전문적인 정보검색의 방법을 교육시킬 인력도 부족하며, 데이터베이스 제공업

자들의 전문성도 떨어진다.

현재 정보검색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보 검색사의 정확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검색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나 이전의 포스데이터에서 정보검색사 교육을 받아 활약하고 있는 사람을 비롯하여 약 100여 명 정도가 3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하여 연구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의 직업군을 형성하여 각 분야에서 요청되는 정보검색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에서, 지금 정보검색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싶다.

- 정보검색사를 하나의 직업으로 하면서 끊임없이 이 분야에서 노력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가?
- 왕성한 지식욕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전문 분야와 함께 주변의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 정보검색사를 한다면 최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신의 전문 분야가 있는가?
-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가?
- 논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 다양한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위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부족하나마, 산업기술정보원의 기초 검색 과정이나 데이콤 또는 유니텔에서 제공하는 전문 데이터베이스 교육을 받아보기를 권하고 싶다. 그리고 정보검색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천리안의 해외 데이터베이스 동호회에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고, 게다가 전문적인 정보검색 회사나 기업체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그곳에서 실무경험을 쌓아간다면 훌륭한 정보검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의할 것은 교육만 받으면 능숙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교육은 단순히 이 분야에 들어서도록 하는 가이드에 불과하다. 일본의 정보검색사 1급에 합격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남자의 경우 38세, 여자의 경우 32세로서 평균 35세의 연령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당장의 교육보다도 이 분야에서 얻은 실무경험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장 빠르고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의 시험과목을 보는 것이다. 정보검색사 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신에 대한 지식
- 데이터베이스의 특성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이해와 데이터베이스의 선정 능력
- 각 분야에 대한 정보 검색 전략 및 분석 능력
- 정보 유통 채널 및 매체의 선택 능력과 이들의 사용에 대한 비용 분석 능력
- 영어 독해 능력

요사이 정보를 손쉽게 찾아 주는 지능형 검색 시스템이 개발됨에 따라 정보검색사란 직업이 과연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정보검색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정보의 소재만을 찾는 것이라면 이 의문은 타당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정보검색사는 정보의 소재만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검색된 정보를 의뢰자가 원하는 형태로 분석하고 가공하는 고도의 숙달된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이다.

따라서 정보검색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찾아내는 전문 기술을 습득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정보를 통해 정책 결정을 하는 정보 임원이나 고도의 컨설턴트와 같은 정보 전문가가 되도록 자신을 다그쳐야 할 것이다. 